

#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 11 월 선교편지

NOV 3, 2016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7-39)

###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때때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특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는데, 그 결과가 'NO'가 되었을 때, 그 것을 기도응답으로 받고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NO'도 기도응답일텐데 그래도 우리 가슴속에는 '왜 안되는 데요, 그래도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있어 순종하며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과 생각이 이해가 되던 안되던, 좋던 싫던, 쉽던 어렵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기꺼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말랑 UKCW 기독 종합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대학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진입로 땅주인에 의해 대학 진입로가 닫혀버렸고, 결국 1주일간 임시휴교를 하면서 이 건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로 땅 주인을 만나 사정사정을 하였지만 모든 방안을 거절당하였고, 간신히 11월 한달간만이라도 열어주기를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11월 한달동안 새로운 대학 임대장소를 찾아 대학을 다시 이전해야 되어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이 생기고 대학의

어수선함이 계속되고 있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11월 한달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캠퍼스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 건물 가격인 150만불중 30만불밖에 지불을 하지 못하여 들어갈 수 없어 다른 장소를 임대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캠퍼스는 150만불 중 50만불을 지불하면 일단 들어가서 사용할수 있지만 현재 20만불을 급하게 구할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UKCW 대학의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하루빨리 안정화 되어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랑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독교 종합대학이 주님의 이름을 실추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카르타 한센인들을 위한 의족후원사역과 한센인자녀 교육후원사역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센인 마을에 지난 9월에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고 온 Ibu Markeni 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 9월에 만났을때 영접기도를 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아파서 누워있는 Ibu Mardiah 를 찾아가 기도해 드리고 영접기도까지 시켜드렸습니다. 현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냄새와 오물들로 매우 지저분하였지만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이 분의 입술 고백이 진정한 심령 고백이 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카르타에 계신 한 목사님의 후원으로 한센인 3분에게 의족을 전달하고, 120명 한센인 자녀 교육후원과 기도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3살반 된 Egg 어린이를 만났는데, 한센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열이나고 아파해서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 받았더니, 신장에 악성종양이 생겼다고 종양 샘플을 채취한다고 어린아이 배를 완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더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암전문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비용을 내지 못해 검사결과표와 진료소견서도 받지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비용이 없어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어린아이의 배를 무슨 활복하듯이 갈라놓은 것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Egg 어린이가 재정이 준비되어 암센터에서 수술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솜바섬에 계속되는 교회건축과 새로운 초등학교 물탱크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그동안 솜바섬 산속마을에 건축중이었던 Bukit Zaitun (감람산)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처음 세워진 Bukit Zaitun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마음껏 마을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부터 새로 건축을 시작한 Matawai Iwi 마을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츠카 제약회사 후원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Bidiwai 초등학교 물탱크 공사를 위하여서도 기도바랍니다. 솜바섬 영혼들 중 약 60%가 아직도 정령신앙 속에 살고 있으며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으면 새로운 마을들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파숫군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을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솜바섬 산속 마을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건축의 위한 재정들과 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 사역자분들의 건강과 영적강건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호주 호산나 교회 선교팀들과 한국 순회선교단 비전트립팀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호주 호산나교회 선교팀들과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솜바섬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번에는 기아대책 후원으로 6개 산속마을 초등학교 어린이 약 1,000명에게 학용품 셋트들도 전달하며 초등학교 6개와 15군데 마을에서 예배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호주 호산나 교회는 다민족교회이며 금번에 오는 20명 선교팀 가운데 5명 한국청년, 2명 인도네시아 청년, 1명 필리핀청년, 13명 중국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큰 의미와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마음껏 높혀 드리는 솜바섬 사역이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순회선교단 비전트립팀과 함께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말랑, 솜바섬에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24시간 느헤미야 기도및 예배사역을 하면서 3군데 지역 영혼들을 섬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기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와 캄보디아 기아대책 선교모임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늘 사랑과 기도로 품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11월 한달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6년 11월 3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드림